

‘FA 등급제’ 급물살 탈까? 머리 맞대는 단장들

내년 1월 첫 실행위서 본격 논의

실행위원 워크숍서 정식 안건 채택 합의
FA 시장 양극화…구단-선수 ‘윈윈’ 모색

“내년 1월 첫 실행위원회에서 내실 있고 깊 있게 얘기하자.”

KBO와 10개 구단 단장(실행위원)들은 14~15일 부산에서 ‘실행위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는 올 시즌 후 새롭게 단장에 오른 LG 양상문 단장과 조계현 단장도 함께 했다. KBO와 단장들은 이 자리에서 2016년을 결산하는 한편 2017년 예산안도 심의했다. 그러면서 1박 2일 동안 각종 현안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논의를 했다.

이날 실행위원 워크숍의 가장 큰 화두는 프

리에이션트(FA) 제도 개선안이었다. 현행 FA 제도를 그대로 이어갈 것인지, 바꾼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FA 등급제’ 시행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올 겨울 FA 시장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몇몇 특급 FA는 거액으로 이미 도장을 찍었지만, 대다수 준특급과 저가형 FA는 좀처럼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복귀한 황재균(kt), KBO리그 복귀 가능성이 큰 김현수는 논외로 치더라도 FA 신청을 한 18명 중 계약이 완료된 선수는 6명에 불과하다. 4명(롯데 손아섭 문규현, SK 정의윤, 삼성 권오준)은 잔류했고, 2명(삼성 강민호, 롯데 민병현)은 이적했다.

그러나 FA 12명은 아직 계약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적으로 맞물린 결과지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는 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보상금과 보상선수 규정이 FA의 자유로운 이적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FA 등급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년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연봉이나 나이 등에 따라 선수 등급을 나눠 보상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선수와 구단의 입장이 다르고, 구단마다 견해가 달라 좀처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KBO는 이번 실행위원 워크숍에 FA 제도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올렸고, 그 중 FA 등급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새해 1월 9일에 열리는 2017년 제1차 실행위원회부터 정식 안건으로 다루자는 데 뜻을 모았다.

A구단 단장은 “FA 제도는 선수협과도 조

율해야 할 부분이 있고, 실제로 시행이 되려면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그래서 내년 1월 첫 실행위원회부터 현실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식 안건으로 올려 내실 있고 깊 있게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BO 박근찬 운영팀장은 “그동안 FA 등급제를 비롯해 FA 제도 개선과 관련해 언론과 팬들의 지적이 이어졌다”면서 “올해는 구단과 선수협이 대리인(에이전트) 제도 도입 쪽에 초점을 맞췄지만, 내년엔 FA 제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과연 구단과 선수가 ‘윈윈’할 수 있는 FA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쾡쾡 얼어붙은 FA 시장을 활성화하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국 전문기자 keystone@donga.com



다저스 클렙하우스의 리더였던 아드리안 곤살레스는 17일(한국시간) 4대1 트레이드로 애크랜더로 이적했다. 이번 트레이드로 다저스는 고액 연봉선수들을 대거 정리했다. 사진 | AP뉴시스

곤살레스 방출 사치세 희생양?

다저스, 고액연봉자 정리 4대1 트레이드

10월 25일(한국시간) LA 다저스-휴스턴의 월드시리즈 1차전이 열리기 직전, LA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매체들은 경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한 건의 기사를 앞 다퉈 보도했다. 29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오른 다저스의 전력을 분석하고 우승에 필요한 요인들을 짚어가던 시점에선 다소 생뚱맞은 내용이었다. 요지는 ‘다저스 클렙하우스의 리더인 아드리안 곤살레스가 월드시리즈를 치르는 팀에 합류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휴가를 떠났다’였다.

그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17일, 충격적인 4대1 트레이드가 메이저리그를 강타했다. 다저스가 베테랑 1루수 곤살레스(35)를 비롯해 좌완투수 스콧 카즈미어(33), 우완투수 브랜든 매카시(34), 유격수 찰리 쉐버슨(28)을 애크랜더로 보내는 대신 과거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외야수 맷 켐프(33)를 복귀시켰다. 애크랜더는 트레이드 성사 직후 곤살레스를 지명양도함으로써 사실상 방출했다. 이제 곤살레스는 프리에이전트(FA) 신분을 얻어 새 팀을 찾아야 한다.

이번 트레이드의 목적은 분명하다. 통상적인 전력보강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즉각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낳고 있다. 미국 매체들은 일제히 ‘다저스가 페이롤을 줄이기 위해 고액연봉자인 곤살레스, 카즈미어, 매카시를 한꺼번에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다저스가 애크랜더를 지명대로 삼아 대대적으로 고액연봉자 정리에 나선 것이다.

내년 연봉이 2236만달러인 곤살레스, 1767만달러인 카즈미어, 1150만달러인 매카시를 내보낸 덕분에 다저스는 단숨에 5153만달러의 연봉부담을 덜었다. 사치세(luxury tax) 부과기준인 1억9700만달러 아래로 연봉 총액을 낮출 수 있는 결정적 발판을 확보했다. 올해 다저스의 연봉 총액은 2억6510만달러로, 뉴욕 양키스(2억2450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어 메이저리그 전체 1위였다. 미국 매체들은 다저스가 내년부터 2년간 4300만 달러가 남은 켐프도 이적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행간을 주목한다면, 이번 트레이드는 또 다른 여운을 남기게 풍긴다. 한때 다저스를 상징했던 곤살레스에 대한 가차 없는 처분이다. 미국 매체들의 표현대로 ‘클렙하우스의 리더’였다. 올해 자질구레한 부상에 시달리기 전까지는 빅리그 데뷔 이후 줄곧 내구성에서도 A학점을 받았던 곤살레스다. 올해는 코디 벨린저라는 슈퍼 루키에게 밀렸지만, 내년 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 곤살레스를 다저스가 상호 전력보강을 위한 트레이드가 아닌 상당히 이례적인 트레이드의 매물로 끼워서 방출했다. ‘메이저리그는 비즈니스다’라는 냉정한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파격적이다. 공교롭게 10월 25일 ‘곤살레스의 이상한 휴가’를 언급할 때부터 일부 매체는 ‘시즌 후 곤살레스의 거취’를 언급했다. 월드시리즈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다가 메이저리그 원터미팅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신분을 얻은 곤살레스의 향후 행보가 궁금하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2017년 신인왕 넥센 이정후(오른쪽)가 2018시즌 데뷔하는 대형 유망주 kt 강백호와 행사장에서 함께 자리했다. 이정후는 10년 만에 등장한 순수 고졸 신인왕이다. 양창섭(삼성·오른쪽 위)과 안우진(넥센·오른쪽 아래)도 내년 시즌 큰 기대가 모아지는 고졸 신인이다. 스포츠동아DB

이정후에 강백호까지…‘고졸 루키’ 전성시대

이정후, 신인왕 대박…kt 강백호, 벌써 내년 후보로
삼성 양창섭·넥센 안우진 등 고졸 신인들 활약 주목

베이스볼 브레이크

한국프로야구에서 신인왕 타이틀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신인상 수상을 시작한 1983년부터 올해인 2017년까지 ‘슈퍼 루키’의 영광을 손에 쥔 주인공들은 단 35명에 불과하다. 까다로운 수상기준, 경쟁자들을 압도할만한 성적, 팀 사정 등 여러 조건의 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한 번뿐인 트로피에 다가설 수 있다.

역대 신인왕들 중에서 또 하나의 바늘귀를 통과하는 이들은 바로 고졸신인들이다. 올해 신인왕의 주인공인 이정후(20·넥센)는 2007년 신인왕인 임태훈(당시 두산) 이후 10년 만에 나온 순수 고졸신인 수상자다. 그 사이 10년 가까운 세

월은 소위 ‘중고신인’이라 불리는 자원들이 득세했었다. 신재영(넥센·2016년 신인왕), 구자욱(삼성·2015년 신인왕), 이재학(NC·2013년 신인왕) 등 입단년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선수들이 트로피를 휩쓸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됐던 이유는 한국프로야구에서만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때문이다. 우리나라 아마추어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진학, 군 문제 등의 이유로 일찍잡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선택’을 강요받는다. 누군가는 부모의 뜻에 따라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또 누군가는 팀 사정에 따라 입단 후 곧바로 군에 입대한다. 약관 20살의 나이부터 정상적으로 프로야구선수 생활을 시작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최근에는 과거와 다르게 고졸선수들의 프로직행이 대체가 됐다. 그러나 이런 고졸자원 홍수 속에서도 단번에 날개를 편 선수들은 많지 않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계속된 ‘혹사’로 인해 입단 첫 해부터 몸에 칼을 대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순수 고졸 루키의 신인왕 등극이 최근 들어 더욱 더 큰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10년 만에 나온 고졸 신인왕 이정후의 다음은 누구일까. 1998년생인 이정후는 이른바 ‘베이징 키즈’의 첫 선발주자이기도 하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바람을 타고 성장한 황금세대들이 이제부터 속속들이 프로무대에 입성하는 것이다. 고졸자원의 프로직행 바람까지 더해지며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KBO

리그에서 일찍 두각을 드러낼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8년 1차지명에서 kt의 선택을 받은 강백호(kt·18)는 데뷔전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신인왕 후보로 꼽히는 중이다. 여기에 양창섭(삼성·18), 안우진(넥센·18) 등 다른 여러 고졸자원들의 야성도 만만치 않다. 순수 고졸신인들의 신인왕 경쟁이 내년 불거리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

원래 이래 고졸신인이 입단 첫 해에 KBO리그 신인왕 트로피를 차지했던 경우는 단 8차례 뿐이었다. 1992년 롯데 엄중석이 최초의 사례였고, 마지막 주자는 올해 이정후다. 35명 중 8명 밖에 없었던 이 ‘바늘귀’ 사례는 과연 올해를 기점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스냅 견제’까지 장착…주자 발 묶는 휠러

한용덕 감독 “좌완에 빠른 견제까지 가능”

한화는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캠프가 한창이던 11월 일찍잡지 외국인투수 구성을 마쳤다.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외국인투수 정원(2명)을 채웠는데, 11월 12일 우완 파이어볼러 커비스 썬스(26)를 영입한 데 이어 사할 뉘(11월 15일) 좌투수 제이슨 휠러(27)와도 계약을 마쳤다. 메이저리그에서 31경기에 등판했던 썬스와 달리 빅리그 두 계급 등판이 전부인 휠러는 여전

히 국내 팬들에게 생소한 존재다. 한화는 휠러의 무엇에 기대를 걸고 발 빠르게 영입을 진행한 것일까.

휠러는 198cm·116kg의 좋은 체격을 지닌 좌투수로 제구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발진의 좌우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피칭메뉴는 평균구속 140km/h대의 빠른 공과 슬라이더, 체인지업으로 다소 평범하지만, 큰 키를 활용해 높은 타점에서 내리꽂는 변화구의 각이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한용덕



한화 휠러

한화 감독이 눈여겨본 또 하나의 매력포인트가 있다. ‘스냅 견제’가 바로 그것이다.

좌투수가 글러브에서 공을 빼자마자 1루에 견제구를 던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주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도루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무기다. 손목 스냅을 사용해 그 속도를 높인다면 효과는 두 배다. 2009년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라운드 한일전 당시 봉중근(LG)이 1루 주자 이치로에게 견제 모션으로 겁을 준 장면도 여기에 속한다.

뛰어난 견제능력을 지닌 투수의 매력은 라이언 피어밴드(kt)에게서 찾을 수 있다. 견제능력이라는 장점을 발휘한 덕분에 가치를 더욱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5시즌부터 올해까지 3시즌 연속 견제사 1위를 기록한 것이 이를 설명하는 지표다. 2015~2016시즌 넥센 감독으로 피어밴드와 함께했던 SK 엄중영 단장은 “투수가 주자를 잘 묶는 것 자체로 방어율을 1점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밝혔는데, 한화도 휠러에게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 감독은 “휠러가 1루에 견제구를 던질 때 손목 스냅을 활용하는 모습을 눈여겨봤다. 빠른 견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기대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